

환경보전을 위한 제언(VII)

- 참여정부에 바란다 -

A Proposal for Environmental Protection(VII) -To the New Regime-



글 / 文承洙

(Mun, Sung Su)

수질관리기술사, 공학박사,

(주)다존비즈 회장.

E-mail: sungsumun@korea.com

www.dajone.biz

Under the new regime, there are too many protester to the government and other authority. Mostly I understand their circumstances, but the situation fast moves to unwanted direction. We want above confusion and struggles have to stop sooner or later. and also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hould negotiate various conflict relating to enviro - problems, and find the optimum situation for licensed personnel and developed technology

1. 서론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도 5개월여 국내의 환경 문제가 의외로 조용하다. 필자가 IMF금융체제하의 '98년도의 상황에 논급한 대로 경기의 위축으로 산업시설 또는 에너지 시설의 가동 축소로 인하여 배출 오염물이 현저히 저하되자 국내의 자연적 자정 규모와 인공적 처리규모 이내에 들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본다.

그 동안 체계적으로 많은 환경관련 법률로서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도 되지만 일견 이것이 모든 산업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국내 산업시설의 해외 이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보전의 기본 원리는 균형에서 취하여야 하며 한편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의 몫 일 것이다. 국내의 경기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지난 세월에는 그래도 환경문제가 간혹 이슈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의 해결 보다는 쾌적한 생활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환경관계 종사자의 대부

분이 업계의 환경관리인으로서 명맥을 유지 해왔는데 국민의 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전문인이 아닌 이공계 출신 또는 업주로서 바꾸어 준 것은 이 부분의 발판을 아예 치워버린 조치와 같아 그저 현실 유지나 하라는 듯한, 극히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환경업계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말이다. 제조업이 축소되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자동차를 비롯한 에너지 발생시설을 제외한 오염대상은 점점 감소하여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이미 환경 업계는 선도적으로 불황의 늪으로 들어 간지 오래다.

2. 본론

가. 환경단체에 대한 문제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항상 머리에 붉은 띠를 맨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시위가 관습화되어 있는데 근래에는 여기에 가세하여 각종 환경단체가 프로젝트 자체를 무

산시키려하는 시위현장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위의 가속화는 사실 국가의 무력화라는 위협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환경단체에 속한 많은 수의 비전문가와 극소수의 전문가의 부정적인 견해의 주장으로 인하여 대안 없는 반대에 이체는 환경단체라는 신선한 이미지는 쇠퇴하고 특히 어느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그 시위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까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기초조사,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복합적으로 관계하게 되고 또한 매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적 인문적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프로젝트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는 의미는 과학 기술을 매도하고 이어서 과학기술인 위상의 현실적 위축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과기인의 공백으로 이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수년래 국가권력은 지방자치 단체로 많은 사항들이 이관되어 지방 내에 거의 모든 인허가가 지방자치 단체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의 행사로 인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많은 분야에서 궁극적 목표를 자급자족으로 설정해야 하는 당연한 귀결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하는 많은 수의 인가 또는 허가발급 사항이 지방의 세수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곳에서의 수질오염 문제에 관하여 관주도로 요식 숙박업소가 들어서게 하는 것이라면 다분히 관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으로 비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최근에는 엄격히 제한되고 새로운 시설은 환경단체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억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부론, 개발보다는 자기 지역 환경의 적절한 보전으로 그리고 문화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은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감각이 미래의 자립을 이루는 열쇠 일 것이다.

다. 환경부의 먹는 물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환경부에서 2002년도에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겠다고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상업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개체에 의한 수도물 비방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연일 발생되는 식중독 사고를 보면서 정부의 엄격한 형벌 명시는 태양을 향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수도물에 대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의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좋고 안전한 물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왜 정부가 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상수도의 보급률이 대단히 크게 증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도 지하수에 의존하거나 지하수 또는 약수에 대한 맹목적 향수를 막아 낼 방법이 마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하수 또한 토양오염관리가 전무했던 지난날을 상기하면 어떻게 땅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각종 기능성 물에 대한 연구가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특별한 입법을 해서라도 기능성 물에 대하여 음료수라고 무언가 집어넣어야 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누군가 남을 위하여 좋은 물을 만든다면 그리고 이에 대하여 비용이 소요 된다면 당연히 상행위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까지 도출된 많은 기능성 물에 대하여 특성을 종합하여 “기능성 물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의 이상 온난화로 인하여 녹아내린다는 빙하를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는 우리의 대단한 수입 일꾼에게 시장을 뺏기고 달러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물의 명품이라 알려진 비싼 외국제 물의 수입이 날로 증가되면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기능성 물에 대한 시장의 형성 역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기의 진작에 대한 효과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 연구비투입과 이의 경제성

2000년부터 대폭 증액되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차세대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약간의 관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자들과 관리자들이 성의를 다하여 제도적인 정착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응용과 사업화에 있어서 우리의 시장에만 집착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우리의 제조업 기반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가 있는 현실에서 연구가 끝나자 이를 쓸 현장이 도망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사업화에 대한 시장 예측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는 배점 부과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경직된 과제 보다는 자유 과제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 대체기술사의 시효만료

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에 '대체기술사' 난이 있다. 기술사가 모자라니 임시로 자격 인증을 경력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 환경기술사가 200여명 선에서 활약하는 입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소요되는 인력만으로 기술사가 모자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 500명에 육박하는 환경분야 기술사들이 이미 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므로 금후 특급기술자의 수급과 환경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대체기술사를 연차적으로 기술사 자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기술자격이라는 것은 행정규제의 완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대형 과제이다. 기술사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이미 대체 기술사는 시효가 만료된 것이다. 그리고 기술사시험은 대체 기술사 정도의 경력이라면 시험은 완전 개방되어 정원이나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바. 해외 환경시장의 적극적 개발

10여년 이상 지속된 G-7 연구사업 그리고 차세대 환경개발사업에서 도출되고 성과를 거둔 기술들이 국내에 현장에 응용하지 못하고 사장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들 기술들을 패키징화하여 국내시장보다는 우선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한 제조공장에 도입하도록 우선 정부에서 금융적인 배려를 해주고 이를 모체로 현지의 환경시장에 파고들게 하는 방법도 현재 국내에서 거의 사장된 기술들을 되살려 응용분야를 개척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 이주한 기업의 이주 원인중의 하나가 환경압력도 크게 작용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장기 및 거시적 안목에서 환경투자를 생각하여야 하고 연구가 사장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또는 무상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새만금 문제

전북출신 필자는 새만금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6월 7일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한 바도 있다. 갯벌을 살리느냐 농토를 늘리느냐 정부의 대지공급능력을 키워주느냐 조개와 굴들이

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느냐? 고민이 많을 줄로 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를 이루는 역할을 한 것은 당시 소외된 전북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북에 사는 이 들도 이에 대하여 찬반이 갈라지고 갑자기 새만금의 조개의 생명이 북한의 어린이들의 생명보다도 더 대단한가 보다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우리의 입이 미국의 밀가루에 길들여 있어 쌀 대신에 달러로 밀을 사다 먹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쌀이 쌀의 재고를 마치 우리나라 전체의 먹거리 생산이 풍부하여 남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우리 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너무 비싼 것이 문제 아닌가? 여전히 국제 가격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국내 쌀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어김없이 일본 중국 방글라데시, 심지어 산지인 네팔까지도 홍수에 시달리고 농지는 짝여 나가고 있다. 관광지와 기술단지에 대한 발상도 비교적 현실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단지를 만든다는 생각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아. SLOW DEATH.

개구리를 미지근한 냄비 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온도 감지를 못한 채 삶아져 죽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열사, 미국의 유타의 42도가 넘는 대기 온도와 같은 지구상 곳곳의 온도 변화 그리고 빙하대의 북상화 등 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단지에 에어컨디셔너의 온도가 대기의 온도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대기의 온난화는 머지않아 인류의 대재앙으로 다가 올 것이다. 성격상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공공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

든 비난은 한다. 그러나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저감 대책에는 무관심한 특성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고 정부는 특소세까지 줄여주면서 자동차를 사라고 장려하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는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냄비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는가? 무관심한 만큼 기분 좋게 죽을까?

자. 청계천 복원에 대하여

서울 도심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복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양재천을 모델로 구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종래의 거의 2배 이상의 강우강도에서의 빗물의 배수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의 표면은 거의 백퍼센트가 방수된 곳으로서 모든 빗물이 하수 관로를 통하여 배수된다. 게다가 근래에 부쩍 잦아든 시간당 100밀리의 강우량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배수에 대하여 더 큰 관로와 더 큰 배수시설이 요구되는데 청계천이 하천이 아니고 여항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배수관로는 별도로 내부의 물은 펌프로 순환한다는 발상은 환경보전 보다는 조경공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강우 배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를 부탁한다.

북한산의 계곡은 비교적 짧아서 장기간 빗물을 머금어 서서히 배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곡물이 상시 흐르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이에 한강물이나 중랑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순환시키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에 대하여 특히 냄새 그리고 세균의 문제에 대하여 예상되는 모든 면에서 고려되기를 바란다. 살균의 문제는 다량의 염소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THM에 대하여 잘 생각해 주기 바란다.

차. 멈춰야 할 자해행위

참여정부 들어서서 계속되는 우리의 자해행위는 이제 멈추지 않으면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쓸쓸히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몸을 칼로 바늘로 찌르고 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 그리고 이해관계의 도처에서의 충돌, 이로 인하여 계속되는 상대비교 이에 따른 좌절,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갖가지 서로 얽혀 있는 인연으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 좁은 땅에서 서로의 악한 인연을 만드는 일이 계속되는 한 우리 민족의 앞날의 빛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머리에 띠를 매는 것만으로도 아마존의 나비효과로 인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민 경제에 바늘을 찌서 박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다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3. 결론

냄비 안에 개구리인 우리는 주위가 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대하

여 전혀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개인의 희생은 전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논리로서 사사건건 2분 3분화되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법원은 만원이고 머리띠는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형성된 일종의 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고 필자도 기성세대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양상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정책 수립상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수행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환경관계인의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경제 상황에 앞서서 이미 바닥을 파고 있는 환경관련 업계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고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환경관계 기술자와 경영자 그리고 관리자 등을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국민들이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방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활약을 기대한다.

(원고 접수일 2003. 7. 24)

